

고린도전서 13:13의 국문 번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태섭*

1. 들어가며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νοὶ δὲ μένει πίστις, ἐλπίς, ἀγάπη, τὰ τρία ταῦτα. μείζων δὲ τούτων ἡ ἀγάπη). 이 구절은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이 암기할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이다. 그런데 이 구절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 초창기 한글 역본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3:13의 번역이 현재의 『개역개정』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00년판 『신약전서』이다: “이제 믿음과 브라는 것과 사랑함이 이 세 가지가 잇스니 그 중에 가장 큰 거슨 사랑 함이니라.” 단순한 문체의 변화를 제외하면, 그 의미에 있어 크게 2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문두(文頭)의 ‘νοὶ δέ’를 번역할 때 『신약전서』와 『개역개정』은 각각 ‘이제’와 ‘그런즉’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 (2) 『개역개정』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항상’(恒常)이라는 부사를 첨가하면서, 그리스어 현재동사 ‘μένει’를 미래시제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문 번역이 달라진 역사적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13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주석적 분석에만 국한된 반면, 이 구절의 번역사(翻譯史)적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¹⁾ 이에 본 소

*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ktaesup@puts.ac.kr. 이 논문은 202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한글 성경 ‘역본 단위’의 거시적 연구는 많이 있지만, ‘특정 본문(구절)의 번역사(史)’에 대한 미

고(小考)는 고린도전서 13:13의 우리말 번역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예수성교전서』(1887)

주지하다시피 『신약전서』(1900)가 나오기 전, 로스(John Ross)를 중심으로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등이 함께 신약성경 전권(全卷)을 번역한다. 이렇게 하여 최초로 완역·출간된 한글 신약전서가 바로 『예수성교전서』(1887)이다. 로스는 1883년에 영국성서공회 총무(William Wright)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거기서 그는 한글 성경 번역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먼저 조선인 학자가 문리체(文理體, 고전 한문체) 및 관화체(官話體, 구어체) 한역(漢譯) 성경들을 토대로 초벌 번역을 하면, 로스는 그리스어와 영어 성경을 토대로 검토하는 방식이었다.²⁾ 따라서 먼저 로스의 번역에 기초가 되었을 당시의 한역본(漢譯本)들³⁾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한역 성경에는 『신천성서』(神天聖書, Morrison-Milne Version, 1823), 『구세주야소신유조서』(救世主耶穌新遺詔書, Gützlaff Version, 1839), 『대표역본』(代表譯本, Delegates' Version, 1852), 『야소기독 구세주신약전서』(耶蘇基督救世主新約全書, Bridgman-Culbertson Version, 1859)와 같은 문리체(文理體) 역본들이 있었으며, 구어체(官話體) 역본으로는 『북경관화역본』(北京官話譯本, 1872)이 있었다. 이 한역본들의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당시의 한역본들은 세로쓰기로 기록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이를 가로쓰기로 인용함).

시적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역본 단위’의 거시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도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1 (2010), 75-125; 이상규, “한글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한국성경번역사 개관—”, 『고신신학』 13 (2011), 229-258.

- 2)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64-65. 참고,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는 당시 조선인 번역자들이 참고한 한역(漢譯) 성경으로 문리체(文理體) 대표역본(代表譯本)만을 언급하고 있다(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1, 2020. 7. 28 접속). 그러나 당시 조선인 조사들이 문리체(文理體)와 더불어 구어체(官話體) 한역(漢譯) 성경들을 참고했다는 점을 로스(J. Ross)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J. Ross,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1883), 495 참고.
- 3)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81-182 참고.

『신천성서』	今信、望、仁、三者並存、而其中最大者仁矣。 (私譯: 지금은 믿음, 소망, 인애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인애니라)
『구세주야소신유조서』	今有信德、希望、仁愛、基三者、莫大於仁愛也。 (私譯: 지금은 믿음의 덕, 희망, 인애가 있다. 그 셋은 인애보다 큼이 없다)
『대표역본』	所存於今者、信也、望也、仁也、三者之中、仁為大。 (私譯: 지금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인애이다. 세 가지 중에 인애가 크다)
『야소기독구세주신약전서』	今也、信、望、愛、此三者皆存、其中至大者愛也。 (私譯: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함께 존재한다. 그중에 지극히 큰 것은 사랑이다)
『북경관화역본』	如今有信、有望、有愛、這三樣常存、其中最大的是愛。 (私譯: 지금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 세 종류는 항상 존재한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위에 열거된 한역 성경들을 보면, 일단 그리스어 접속사 ‘δὲ’에 상응하는 표현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문리체 역본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금’(今)이란 시간 부사를 사용한 반면, 예외적으로 관화체 역본만은 ‘지금’(如今) 이후에 ‘항상’(常)이란 시간 부사를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한역 성경들이 대부분 ‘常’ 없이 ‘今’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의 조선인 조력자가 초벌 번역에서 ‘常’에 해당하는 ‘홍상’ 또는 ‘당상’을 첨가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설령 『북경관화역본』의 ‘常’을 따라서 초벌 번역에 ‘홍상’과 같은 부사를 삽입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로스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번역을 최종 수정 및 확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그리스어 『개역본』과⁴⁾ 영어 『개정역』(the Revised Version)은⁵⁾ 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⁶⁾ 그가 참고한 영어 『개정역』과 그리스어 『개역본』

4) Edwin Palmer, *H KAINH DIAΘ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참고,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114.

5)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6)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54. 로스는

의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

영어 『개정역』 But now abideth faith, hope, love, these three; and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그리스어 『개역본』 νυνὶ δὲ μένει πίστις ἐλπίς ἀγάπη τὰ τρία ταῦτα
μείζων δὲ τούτων ἡ ἀγάπη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어 『개역본』 고린도전서 13:13은 오늘날 NTG²⁸과 차이가 없다. 영어 『개정역』은 ‘항상’에 해당하는 부사 없이 ‘μένει’를 현재시제 그대로 ‘abideth’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νυνὶ(νῦν)’가 기본적으로 ‘지금’이란 뜻의 시간 부사임을 감안하여,⁷⁾ 영어 『개정역』이 문두의 ‘νυνὶ δέ’를 ‘but now’로 직역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로스는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어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가 있다.⁸⁾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역(漢譯) 성경들도 특별히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로스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but’이나 ‘δέ’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시간 부사 ‘이제’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예수성교전서』에 수록된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띄어쓰기 없이 세로쓰기로 기록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이를 가로쓰기로 인용함).

『예수성교전서』 이제밋음과바람과사랑이세가지로되그중제가장큰거슨
사랑이니라

오늘날 『개역개정』과 비교해보면, 『예수성교전서』에는 ‘항상’(恒常)이란 시간 부사가 없다. 로스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스어 『개역본』을 기준으로 ‘절대 직역’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⁹⁾ 그리스어 원문에 명시적으로 없는 ‘항상’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동사 ‘μένει’는 현재시제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문두의 그리스어 ‘νυνὶ δέ’가 접속사 없이 ‘이제’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역본(RV)을 참고했으나 그리스어 『개역본』을 더 중요한 번역의 기준으로 삼았다.

7) *BDAG* s.v. “νυνὶ”. ; *TDNT*, s.v. “νῦν”.

8)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54. 1883년에 로스가 라이트(William Wright)에게 보낸 로스의 서신(원문은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63) 참고.

9)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54.

3. 『고린도전서』(1898)와 『신약전서』(1900)

1893년부터는 내한 선교사들이 ‘성경번역자회’(聖經翻譯者會[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이하 ‘번역자회’)를 조직하여 ‘국내’에서¹⁰⁾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당시 번역자회는 언더우드(H. G. Underwood), 게일(J. S. Gale), 스크랜튼(W. B. Scranton), 아펜젤러(H. G. Appenzeller), 트롤로프(M. N. Trollope)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한글 번역의 저본(底本)으로 활용한 성경은 로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영어 『개정역』과 그리스어 『개역본』이었다.¹¹⁾ 번역자회는 한국인 조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문리체 역본들을 바탕으로 한역(韓譯) 초고를 작성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어 성경도 참고하였다.¹²⁾ 이에 따라 신약성경이 번역되는데, 그렇다고 『신약전서』 전체가 단번에 번역·출판된 것은 아니다. 1900년까지 신약 성경들은 ‘권별로’ 번역되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의 번역은 언더우드와 게일이 담당했고, 삼문출판사를 통해 1898년 9월에 간행되었다.¹³⁾ 1898년판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세로쓰기로 출판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이를 가로쓰기로 인용함).

『고린도전서』 이제 믿음과 사랑의 것과 사랑함이 이 세 가지가 있스
니 그 중에 가장 큰 거스 사랑 흠이니라

『예수성교전서』와는 달리 띄어쓰기가 시도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에 있어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양자의 차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수성교전서』가 ‘바람’이란 명사형을 사용했다면, 『고린도전서』는 ‘브라다’는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느’과 의존 명사 ‘것’을 덧붙였다. (2) 『예수성교전서』가 ‘사랑’이란 명사를 사용한 반면, 『고린도전서』는 ‘사랑함’이란 명사형을 사용했다. (3) 『예수성교전서』에는 동사 ‘μένει’의 번역이 모호하게 처리된 반면, 『고린도전서』에는 ‘잇스니’로 보다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전서』에도 ‘항상’(恒常)이란 시간부사가 없고, 문두의 그리스어 ‘vovi δέ’가 접속사 없이

10) 로스가 주도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와 『예수성교전서』(1887)는 중국에서 번역되었고, 이수정의 『신약마가복음서언해』(1885)는 일본에서 번역되었다. 반면에 성경번역자회는 내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11)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5-36.

12) Ibid., 36.

13) Ibid., 49에 나온 신약성경 각 권의 출판 연표와 각주 7번을 참고할 것.

‘이제’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번역자회에서 애초에 구상한 성경 번역의 단계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번역자들이 조선인 조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역’(Individual Draft)을 작성한다. (2) 번역자회 전체에서 토의와 수정을 거쳐 표결로 확정된 ‘시험역’(Tentative Version)을 출판한다. (3) 이후에 3년간의 반포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개정된 ‘공인역’(Authorized Version)을 간행한다.¹⁴⁾ 이러한 장기 계획에 따라 1900년 봄에 이르면, 번역자회는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시험역본의 준비를 마친다. 그런데 당시 한국 교회는 교세의 급성장으로 인해, 성경의 현장 수요가 기존의 공급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번역자회는 신약전서의 빠른 출간을 위해 고린도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기존의 ‘개인역’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리하여 아쉬운 대로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의 ‘시험역’과 고린도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개인역’들을 합본하여 1900년 5월에 『신약전서』를 출간했다. 그러니까 『신약전서』의 고린도전서는 결국 1898년에 낱권으로 간행된 개인역 『고린도전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13은 『고린도전서』(1898)와 『신약전서』(1900)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믿음과 브라는 것과 사랑함이 이 세 가지가 있스니 그 중에 가장 큰 거슨 사랑 흠이니라”(『신약전서』[1900] 고전13:13).

4. 『신약전서』(1904[개정판], 1906[재개정판])

고린도전서 13:13의 번역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개정판 『신약전서』(1904)의 출간이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900년에 간행된 『신약전서』는 ‘불완전한’ 시험역이었기 때문에, 번역자회는 고린도전서부터 번역을 다시 개정하기로 한다. 그 당시 개정을 주도한 선교사들은 아펜젤러, 게일, 레이놀즈(W. D. Reynolds)였으나, 아펜젤러가 1902년 6월에 순직한 이후로는 언더우드와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1904년에 개정을 마치고 일본 요코하마복음인쇄사에서 출판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개정판에 천 개가 넘는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를 재개정하여 1906년에 『신약전서』가 다시 간행되었다. 재개정된 ‘공인역’ 『신약전서』(1906)는 5년 후

14) Ibid., 37. 번역자회의 번역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개인 역본→수정 역본→번역자회 역본→시험 역본→공인 역본’의 5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89-90 참고.

에 『성경전서』(1911)에 수록되어 이후 한글 역본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신약전서』(1904, 1906)의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세로쓰기로 출판되었으나 가로쓰기로 인용함).

『신약전서』(1904)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홍상 잇슬
거신되 그중에 데일은 사랑이라

『신약전서』(1906)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홍상 잇슬
거신되 그중에 데일은 사랑이라

개정판 『신약전서』(1904)의 ‘잇슬’이 재개정판에서 ‘잇슬’로 표기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두 판본의 고린도전서 13:13은 동일하다. 또한 한글 문체가 구한말 고어체인 것을 제외하면 개정판 『신약전서』(1904)는 오늘날 『개역개정』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기존의 『신약전서』(1900)에서 개정판 『신약전서』(1904)가 크게 달라진 점은 문두의 그리스어 ‘*vuv̄i δ̄s*’를 ‘이제’라는 시간 부사 대신에 ‘그런즉’이란 접속 부사로 번역했다는 점과 원어에 없는 ‘홍상’이란 부사를 첨가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즉’과 ‘항상’이란 표현이 우리말 번역에 등장하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조사들이 초벌 번역에 사용한 문리체 한역본(漢譯本)들에는 우리말 ‘그런즉’에 해당하는 표현 — 예를 들어 ‘然則’과 같은 표현 — 이 없다. 관화체 『북경관화역본』에서도 ‘항상’에 해당하는 ‘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 ‘그런즉’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우리말 번역 ‘그런즉’의 출처는 한역(漢譯) 성경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한국인 조사들이 참고했다던 일본어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1904년을 전후하여 일본 교회가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메이지 성서』(明治聖書 또는 明治元訳, 1887)이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이전에는 약 3세기에 걸친 박해로 인해 일본어로 번역된 신약전서 — 예를 들어 1612년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교토에서 번역·발간한 『京都版新約聖書』 — 가 살아남지 못했고,¹⁶⁾ 귀츨라프(K. F. A. Gutzlaff)와 베텔하임(B. J. Bettelheim)이 각각 싱가포르(1837)와 홍콩(1855)에서 출판한 일본어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및 로마서에 국한되었다.¹⁷⁾

15) 실제로 이 구절은 이후 등장하는 한글 역본들에 ‘의미상’ 큰 변화 없이 수용된다. 아래 ‘5. 고린도전서 13:13 번역사(史)’에서 『신약전서』(1904)의 중요성’ 참고.

16) Katsuomi Shimasak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연구』 24 (2009), 116-117.

17) 귀츨라프(K. F. A. Gutzlaff)는 마카오에서 요한복음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1837년에 싱가포르에서 출판하였고, 베텔하임(B. J. Bettelheim)은 4복음서와 사도행전 및 로마서를 일본어(류큐어

타이쇼 시대(1912-1926)에 『타이쇼 개역』(大正改訳)이 나오지만, 이 역본은 시기적으로 1904년판 『신약전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약전서』(1904)의 고린도전서와 일본어 성경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메이지 성서』를 보아야 한다. 『메이지 성서』 고린도전서 13:13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성서』 それ信仰と望と愛と此の三の者は常に在なり此うち
尤も大なる者は愛なり
(私譯: 원래 신앙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의 것은
항상 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메이지 성서』에서도 『북경관화역본』처럼 ‘항상’에 해당하는 ‘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본에서도 우리말 ‘그런즉’의 출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문두의 ‘それ’는 ‘그것’이나 ‘거기’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데, 만약 ‘때문에’를 뜻하는 ‘ゆゑ’가 함께 쓰인다면, ‘それゆゑ’(그것 때문에)가 되어 ‘그런즉’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¹⁸⁾ 그러나 ‘それ’가 문두에 단독으로 쓰이면 ‘그런즉’이 아닌, ‘원래’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그런즉’(고전13:13)의 출처를 당시의 일본어 성서에서 찾기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한역(漢譯) 성경들과 일본어 성서의 영향이 아니라면, 『신약전서』(1904)의 ‘그런즉’(고전13:13)은 한국인 조사의 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번역은 선교사들의 해석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문두의 그리스어 ‘*vūvi δέ*’는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ūvί(vūv)*’의 일차적인 뜻이 ‘지금(now)’임을 고려한다면 ‘*vūvi δέ*’를 ‘그러나 지금’으로 직역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초대교부들로부터 지금까지 지지를 받고 있다.¹⁹⁾ 이는 앞선 12절과 연결 지어 이해해야 하는데, 특히 12절에

방언)로 번역하여 1855년에 홍콩에서 출판하였다. Ibid., 118.

18) 참고, 실제로 일본성서협회가 2018년에 출간한 『성서협회공동역』(聖書協會共同訳) 고린도전서 13:13을 보면, ‘それ’에 ‘ゆゑ’를 결합하여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それゆゑ、信仰と、希望と、愛、この三つは、いつまでも残る。その中で最も大いなるものは、愛である”(私譯: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는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19) 예를 들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고린도전서 강해(『Homilies on First Corinthians』 34.5)에서 이 구절을 시간적 현재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믿음과 소망은 현재에 유효하며, 믿고 바라는 바가 성취될 그때에는 끊어질 것이다(영어 번역은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12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203-204 참고). 칼빈(J. Calvin) 역시 자신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영어 번역은 J.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vol.1, John Pringle trans. [Edinburgh: T. Constable, 1848], 432 참고).

서 ‘지금’(ἄρτι)과 ‘그때’(τότε)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비친 채로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또한 온전히 알려졌던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βλέπομεν γὰρ ἄρτι δι’ ἐσόπτρου ἐν αἰνίγματι, τότε δὲ πρόσωπον πρὸς πρόσωπον· ἄρτι γινώσκω ἐκ μέρους, τότε δὲ ἐπιγνώσομαι καθὼς καὶ ἐπεγνώσθη).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τότε)는 ‘종말론적 그때’를 의미한다.²⁰⁾ 그때는 주께서 재림하시어 상급을 받는 때(τότε)이며(고전 4:5),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부활의 때(τότε)이다(고전 15:54). 이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종말론적 그때’와 달리, ‘지금’(ἄρτι)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ἄρτι)은 아직 ‘그때’가 오기 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를 의미한다.²¹⁾ 이렇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지금’과 ‘그때’를 대조하고, 13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지금은(νυνὶ δέ)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남아 있는데, 이들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선언한다.²²⁾ 앞선 12절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인간의 삶이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에서는 ‘믿음’(πίστις)이 있어야 하며,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ἐλπίς)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그때’가 되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때에 소망은 완전히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그때’가 아닌 ‘지금’에 남아 있는 것이다.²³⁾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그때’에도 남아 있게 된다. 주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도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8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ἡ ἀγάπη οὐδέποτε πίπτει)고 말한다. 이처럼 사랑은 영원하

20)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1070;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4), 718-719.

21)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717-718.

22) 신약에서 ‘νῦν(νυνί)’는 ‘ἄρτι’와 동의어이다. 예를 들어 요 13:36-37을 보면, 36절에서 ‘지금’을 뜻하는 단어가 ‘νῦν’이었다가 그다음 37절에서 ‘ἄρτι’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νῦν)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ἄρτι)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Sthälin, *TDNT*, s.v. “νῦν” 참고.

23) Ben Witherington III,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272;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7), 230.

기에,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크다(μείζων δὲ τούτων ἡ ἀγάπη).²⁴⁾ 이렇게 ‘*νοὐνι δέ*’를 시간적 현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직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νοὐνι δέ*’를 시간적 개념이 아닌 ‘논리적 귀결’을 나타내는 접속구(接續句)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경우, ‘믿음, 소망, 사랑’(고전 13:13)이 ‘예언, 방언, 지식’(고전 13:8하)과 비교되는 것으로 본다²⁵⁾: ‘예언들은 폐하여질 것이요, 방언들은 그칠 것이며, 지식이 폐하여질 것이다’(εἴτε δὲ προφητεῖαι, καταργηθήσονται· εἴτε γλῶσσαι, παύσονται· εἴτε γνῶσις, καταργηθήσεται). 여기서 바울은 은사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들은 파편적이며(고전 13:9),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결국 폐하여질 유한한 것들이다(고전 13:10).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의 유한성을 비유적으로 더 설명한 후(고전 13:11-12), ‘결론적으로’(*νοὐνι δέ*) ‘믿음, 소망, 사랑’을 제시한다. 따라서 예언, 방언, 지식이 ‘유한’하다면, 이에 대비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의 영원성은 고린도전서 13:8을 통해 유추할 수 있지만,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νοὐνι δέ*’를 ‘논리적 귀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도 재림 이후에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⁶⁾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믿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형태’로 지속되고, 소망은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뤄 가실 것(새 창조)에 대한 ‘기대의 형태’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현시대나 다가올 시대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13의 ‘*μένει*’는 문자적인 현재 시제를 넘어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νοὐνι δέ*’를 ‘논리적 귀결’의 접속구(接續句)로 간주하는 경우, 문맥적 해석 — 직역이 아닌 — 을 통해 ‘항상’이라는 부사를 첨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3:13은 ‘*νοὐνι δέ*’의 해석에 따라 직역을 할 수도 있고, 의역을 할 수도 있다. 『예수성교전서』(1887), 『고린도전서』(1898), 『신약전서』(1900)가 이를 직역한 경우라면, 『신약전서』 개정판(1904)과 재개정판(1906)은 해석에 근거한 의역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회가 『신약전서』를 개정하면서 고린도전서 13:13의 해석에 변화를 주게 된 것은 한국인 조사가 아닌 선교사들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시 번역자회 선교사들이 참고했던 주석

24) Hays, *First Corinthians*, 231.

25) David E. Garland, *1 Corinth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626.

26)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072-1073; Hans Conzelmann, *1 Corinth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230-231.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성서공회(BFBS) 총무 켄뮤어(A. G. Kenmure)에게 1897년 당시 번역자회에서 제공 요청을 했던 참고 자료 중에 신약과 관련된 주석집(集)은 『마이어 신약주석』(Meyer's Commentary on the NT)과 『엘리코트 신약주석』(Ellicott's Commentary on the NT) 그리고 『알포드 그리스어 신약전서』(Alford's Greek NT)가 있다.²⁷⁾ 우선 『마이어 신약주석』의 고린도전서 13:13에 관한 해설 첫머리를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⁸⁾

Ver. 13. *Nvvi δέ*] *nunc autem*, and thus, since, according to ver. 8 to 12, the present temporary charismata do not continue, but cease in the future age, *continue* (into the everlasting life and onward in it) *faith, hope, love*.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이어(Heinrich August Wilhelm Meyer)는 고린도전서 13:13의 ‘*νῦν δέ*’를 ‘논리적 귀결’의 접속구(接續句) — ‘and thus’ — 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의 현대 주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유한한 은사들과 대조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영원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마이어는 ‘*μένει*’가 ‘영속성’(eternal continuance)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²⁹⁾ 이러한 마이어의 관점은 개정판 『신약전서』(1904)의 번역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코트 신약주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주석은 여러 저자들이 권별로 신약을 주석한 것을 엘리코트(Charles John Ellicott)가 편집·간행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경우 쇼어(T. T. Shore) 목사가 주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13에 관한 그의 해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³⁰⁾

The “now” is not here temporal, but logical. It is not “now” (i.e., this present life) contrasted with the future, but it is the conclusion of the whole argument. From all that has been urged in the previous verses it follows that these three graces—faith, hope, love—remain imperishable and

2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8.

28) Heinrich August Wilhelm Meyer,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to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New York: Funk & Wagnalls, 1884), 308.

29) *Ibid.*, 308, 각주 2.

30) Charles John Ellicott ed., *A New Testament Commentary for English Readers vol.2* (London: Cassell, Petter, Galpin, 1878), 339.

immortal. Gifts such as the Corinthian Church rejoiced in shall pass away.

여기서 보다시피, 쇼어는 고린도전서 13:13에 대해서 마이어와 동일한 해석을 내놓는다. 쇼어 역시 문두의 ‘*vuvì δέ*’를 시간적 현재의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 귀결’의 접속구(接續句)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사라질 은사들에 비해 ‘믿음, 소망, 사랑’은 불멸·불후의 은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쇼어의 주석도 마이어의 주석과 마찬가지로 『신약전서』(1904)의 번역과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8권짜리 『알포드 그리스어 신약전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알포드(Henry Alford)의 그리스어 신약전서는 그리스어 본문 아래 방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약 주석집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3:13에 대한 그의 해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³¹⁾

Some gifts shall pass away—but these three great graces *shall remain for ever*—FAITH, HOPE, LOVE. *This is necessarily the meaning,—and not that love alone shall abide for ever, and the other two merely during the present state.* For *vuvì δέ* is not ‘but now,’ i.e. in this present state, as opposed to what has just been said ver 12.—but ‘*rebus sic stantibus*,’ ‘*quae cum ita sint*’

알포드 역시 문두의 ‘*vuvì δέ*’를 시간적 의미의 ‘지금’이 아니라 ‘접속구’(接續句)로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 은사들은 유한적이지만, 사랑을 포함하여 믿음과 소망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해설을 통해 알포드는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현재의 소망이 실현된 이후에도, 새로운 영광과 지식과 사랑의 보화는 ‘복된 소망’(blessed hope)을 항상 갖게 할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확신과 신뢰’(holy confidence and faith)의 형태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³²⁾ 이러한 알포드의 해석 역시 『신약전서』(1904)의 번역에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자회의 참고 자료 목록에 언급된 세 종류의 신약 주석들은 고린도전서 13:13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31) Henry Alford, *The Greek Testament: with a Critically Revised Text, a Digest of Various Readings, marginal References to Verbal and Idiomatic Usage, prolegomena, an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Cambridge: Rivingtons, 1871), 589.

32) Ibid.

보이고 있다: (1) 문두의 ‘ $\nu\upsilon\upsilon\iota\ \delta\acute{\epsilon}$ ’를 시간의 현재(지금)로 해석하지 않고, 논리적 ‘접속구’(句)로 이해한다. (2) 앞에 언급된 몇몇 은사들 — 예언, 방언, 지식 — 은 유한적이지만, 이에 대조되는 믿음, 소망, 사랑 모두는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이해한다. 이 점은 『신약전서』(1904)의 고린도전서 13:13 번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해설은 『신약전서』(1904)가 ‘이제’를 ‘그런즉’으로 수정하고,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는 부사 ‘홍상’을 첨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고린도전서 13:13 번역사(翻譯史)에서 『신약전서』(1904)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판 『신약전서』(1904)는 1,000곳 이상의 오류(대부분이 일본인 인쇄업자의 한글 오식[誤植]에 의한 철자상의 오류로 추정됨)가 발견되어 정오표와 함께 간행되어야 했고, 그마저도 일찌감치 인쇄가 중단되었다. 또한 개정 과정에 있어 다소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³³⁾ 그러나 『신약전서』(1904)는 고린도전서 13:13의 한글 번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말 성경의 주요 역본들을 출판 연도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성경전서』(1887)	<u>이제</u> 믿음과 바람과 사랑이 세 가지로 되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1898)	<u>이제</u> 믿음과 바라는 것과 사랑함이 이 세 가지가 있스니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사랑 함이니라
『신약전서』(1900)	<u>이제</u> 믿음과 바라는 것과 사랑함이 이 세 가지가 있스니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사랑 함이니라
『신약전서』(1904)	<u>그런즉</u>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u>홍상</u> 잇슬 거신디 그 중에 데일은 사랑이라
『신약전서』(1906)	<u>그런즉</u>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u>홍상</u> 잇슬 거신디 그 중에 데일은 사랑이라
『성경전서』(1911)	<u>그런즉</u>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u>홍상</u> 잇슬 거신디 그 중에 데일은 사랑이라
『개역성경』(1938)	<u>그런즉</u>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u>항상</u> 잇을 것인대 그 중에 데일은 사랑이라

3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61-65.

『개역한글』(1952, 1961)	<u>그런즉</u>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u>항상</u>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약전서 새번역』(1967)	<u>그러므로</u>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u>언제나</u>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개역개정』(1998)	<u>그런즉</u>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u>항상</u>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공동번역 성서』 (1977, 1999[공동개정])	<u>그러므로</u>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u>언제까지나</u>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1993, 2001[새번역])	<u>그러므로</u>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u>항상</u>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3:13의 우리말 번역에 있어 큰 전기(轉機)는 개정판 『신약전서』(1904)의 출간과 맞물려 있다. 이때부터 ‘vuvv δέ’는 시간적 현재인 ‘이제(이제)’가 아닌 접속부사 ‘그런즉’으로 번역 되었고, 그리스어 원문이나 당시 영어 『개정역』(the Revised Version)에 없는 ‘항상’(항상)이란 부사를 첨가하기 시작했다. 이후의 역본들에는 문체의 변화와 구두점의 유무 및 동의어로의 간헐적인 치환(소망→희망, 그런즉→그러므로, 항상→언제나/언제까지나)만 있을 뿐, 의미상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신약전서』(1904)는 고린도전서 13:13의 번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수많은 오류로 인해, 한글 성경의 ‘공인역’이라고 불리는 재개정판 『신약전서』(1906)에 밀려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³⁴⁾ 『신약전서』(1904)는 국문 번역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6. 나가며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13의 국문 번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술한

34) 성서학적 연구는 주로 『신약전서』(1906)판과 이를 그대로 수록한 『성경전서』(1911)에 집중되어 있다.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83-104; 이복우, “『신약전서』(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그리스어 저본(底本) 사용 연구: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48-69; 소기천, “1911년 『신약전서』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에 관한 문화사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27 (2010), 94-112.

바와 같이 해당 구절의 번역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1904년에 개정판 『신약전서』가 출간되면서부터이다. 이전의 『예수성경전서』(1887), 『고린도전서』(1898), 『신약전서』(1900)가 그리스어 원문과 영어 『개정역』(the Revised Version)에 근거한 직역을 택했다고 한다면, 개정판 『신약전서』(1904)는 석의에 근거한 의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문두의 ‘*vovi δέ*’가 현재시제 부사 ‘이제’가 아닌 접속부사 ‘그런즉’으로 번역되었고,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홍상’이란 부사가 새로 첨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당시 번역자회의 참고자료 목록에 있었던 『마이어 신약주석』, 『엘리코트 신약주석』 그리고 『알포드 그리스어 신약전서』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린도전서 13:13의 번역은 ‘의미상’의 큰 변화 없이 우리말 역본들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비록 가장 많은 오류를 지닌 판본이었지만, 우리말 성경 번역사에 있어 『신약전서』(1904)는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Keywords)

고린도전서 13:13, 성경 번역, 신약전서, 번역자회, 공인역.

1 Corinthians 13:13, Bible Translation, Korean New Testament,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Authorized Version.

(투고 일자: 2020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9월 2일)

<참고문헌>(References)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76-199.
- 소기천, “1911년 『신약전서』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에 관한 문화사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27 (2010), 94-112.
-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 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4:1 (2010), 75-125.
- 이복우, “『신약전서』(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헬라어 저본(底本) 사용 연구: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48-69.
- 이상규, “한글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한국성경 번역사 개관—”, 「고신신학」 13 (2011), 229-258.
- 조병수, “『신약전서』(1906년) 로마서의 번역 고찰”, 「성경원문연구」 29 (2011), 83-104.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99-132.
- Alford, Henry, *The Greek Testament: with a Critically Revised Text, a Digest of Various Readings, marginal References to Verbal and Idiomatic Usage, prolegomena, an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Cambridge: Rivingtons, 1871.
- Calvin, J.,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vol.1, John Pringle trans., Edinburgh: T. Constable, 1848.
- Conzelmann, Hans, *1 Corinth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 Ellicott, Charles John, ed., *A New Testament Commentary for English Readers* vol.2, London: Cassell, Petter, Galpin, 1878.
-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4.
- Garland, David E., *1 Corinth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Hays, Richard B.,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7.
- Meyer, Heinrich August Wilhelm, *Critical and Exegetical HAND-BOOK to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New York: Funk & Wagnalls, 1884.

Palmer, Edwin, *H KAINH DIAΘ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Ross, John, "Corean New Testament",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4 (1883), 491-497.

Schaff, Philip,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12,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Shimasaki, Katsuomi, "A Short History of Japanese Bible Translation", 「성경원문 연구」 24 (2009), 116-126.

Thiselton, Anthony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Witherington III, Be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Abstract>

A Reflection on the Translation History of 1 Corinthians 13:13

Tae Sub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 Corinthians 13:13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verses in the New Testament to Korean Christia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pproached it chiefly with exegetical interests, the history of its translation into Korean has been given little attention. Thus, the present research attempts to overview the Korean Bible versions in terms of the changes made to its translation and to discover the underlying reasons for such alterations.

1 Corinthians 13:13 as it now stands in the NKRV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is in fact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early versions published before 1900. When compared with the CNT (Corean New Testament, 1887), the 1 Corinthians (one-volume edition, 1898) and the KNT (Korean New Testament, 1900), it is found that there are two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se early versions and the NKRV: (1) while the former translates $\nu\nu\iota\ \delta\acute{\epsilon}$ as having the temporal sense *now*, the NKRV renders it as a logical conjunctive *thus*; (2) the NKRV has the adverb *forever* which does not appear in the original Greek at face value.

In fact, such changes in the translation of 1 Corinthians 13:13 took place from the KNT (1904). Since this epistle as included in the KNT (1900) was based on the individual draft, 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needed to revise it. According to their list of references, three NT commentaries are found: Meyer's Commentary on the NT; Ellicott's Commentary on the NT; and Alford's Greek N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se three commentaries commonly argue against the temporal sense of $\nu\nu\iota\ \delta\acute{\epsilon}$ considering it as a logical conjunctive. As a result, they advocate eternal existence of the triad (faith, hope, love). This being so, it is more probable than not that the official translators were influenced by these commentaries when they developed the revised version. This may illuminate the reason behind the changes in the KNT(1904)'s translation of 1 Corinthians 13:13.

Given that its translation has not been changed greatly since then, it can be

said that the KNT (1904) is the watershed in the translation history of 1 Corinthians 13:13. Although KNT (1904) has not received due consideration for its numerous spelling errors, its valu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Bibl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